성령충만 세상충만

(행2:1~4)

1.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2.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3.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4.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성령충만 세상충만>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합니다.

'성령 충만, 세상 충만'
오순절이 되어서 성령님이 강림하시게 된 이 사건은 기독교가 말하는 성령 충만의 원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말이 나타내는 원형적 사건이 일어난 것을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 충만의 의미가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데, 어떤 의미를 갖느냐?
제자들은 성령 충만의 이 사건을 통하여 드디어 사도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직후에 남게 된 새로운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추종자에서 명실 공히 내용적으로 꽉 찬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예수의 사람들이 됩니다.
이로서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의 근거되어서 모여 있는 이 새로운 공동체가, 드디어 교회로서 탄생되게 되고 교회로서 가동되며, 교회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 새로운 공동체가 사람들의 모임이었다가 성령 충만의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교회가 되어지고 교회로서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의미는 중차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성령 충만의 사건이, 예수님을 추종하는 추종자들의 공동체가 교회가 되게 한 사건,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가 되게 한 사건, 예수님을 쫓던 자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 사건이, 엄청난 오해에 휩싸여 있다는 겁니다.
오해의 군더더기를 입고 있는 바람에, 이 귀중하고 값진 성령 충만의 사건이 오늘의 우리의 사건이 되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이 오해가 되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와 성령 충만이 나타내는 사건이 소위 성령운동을 한다는 사람들의 전유물이 되어 버렸습니다.
저는 장로교 출신인데, 태어나서부터 장로교에서 유아세례를 받고 지금까지 장로교인으로 살고 있어요, 요즘은, 강릉에 와서는 감리교를 나가고 있습니다.
강릉에서는 큰 감리교회를 나가고 있는데, 이 장로교와 감리교에서는 도대체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 자체를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의 설교 속에서.
특별히 이렇게 직접적으로 해당 되는 본문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 단어가 포함 된 본문이 아닌 다음에는 들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맨~ 기적을 중심으로 갈망하는 방언이라든지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는 성령운동 하는 사람들의 전유물이 돼 버렸습니다, 성령 충만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쫓아다니던 자들을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 사건이 이 사건이고, 그리고 제자들로 하여금 사도가 되게 한 사건이 이 사건이고, 예수님을 쫓던 인간의 무리, 조직, 공동체로 하여금 교회가 되게 한 사건이 이 성령 충만의 사건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은 우리 생활 속에서 늘 반복돼야 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그렇게 되지 못하게 한 오해의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 하면, 본문에 나와 있는 성령 충만의 사건을 언제나 방언과 연결시켜놓습니다.
방언과 연결을 시키면서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
기적적인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의 결과가 그냥 다 빨려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 하면 방언이 상징이 돼버린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게 될 때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 방언이라고 생각을 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오해라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나타나는 사건은 방언 이전의 무엇인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중요하고 본질적이고 우선적인 성령 충만의 결과가 완전히 다 빠져 버려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란 말만 나오면 핫바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충만의 결과로서의 우선적이고 더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내용이 다 빠져 버리고 나니까.

그 다음, 성령 충만에 대한 오해는 우리가 세상 충만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서 일어날 때, 어떠한 상태가 되는가를 알면, 성령 충만에 대한 깨달음도 분명할 텐데… 왜냐하면 반대가 되니까.
성령 충만이 뭐라는 것을 알려면, 세상 충만이 뭐라는 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텐데, 세상이 충만 돼있는 상태에서 성령 충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넌센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세상 충만 되어 있는 상태이냐, 성령 충만 되어 있는 상태이냐를 알려면, 세상 충만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줄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세상 충만의 상태를 알면 성령 충만에 대한 갈망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욕구가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세상 충만하면서도 자기가 성령 충만을 찾고 있어요.
완전히 넌센스 상태에 있으면서 신앙이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 오해를 한번 풀어봅니다.
여러분, 본문 4절에서 말하는 '각기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게 지금 개역개정은 '다른 언어들'이라고 바르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역한글에는 '여러 방언들로 말했다'고 번역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이라는 것이 오순절 성령강림, 성령 충만 사건의 상징적인 것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개역개정에 번역 되어 있는 것처럼, 외국어를 말합니다, 외국어.
우리가 내일 보겠습니다마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오순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왔을 때, 유대 땅에서 쓰고 있는 언어를 모르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성령 충만 받은 사도들과 예수님의 추종자들이 방언을 말할 때, 그 방언을 알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다양한 은사 중의 하나로서의 방언, 말하는 사람도 무슨 뜻인지 모르고 듣는 사람도 무슨 뜻인지 모르는 그러한 방언이 아

니라, 외국어 방언입니다.

그럼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왜 외국어 방언을 하게 하셨을까?
그리고 외국어 방언을 하게 된 이 성령 충만의 결과는, 일회적으로 오순절 날 있고는 그 다음에 없습니다.
뭐 개별적으로 어떤 사람이 외국어 방언을 받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으니까.
공식적으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알려져 있는 상황으로는, 오순절 성령강림 때에 있었던 것이 유일무이한 사건이었습니다, 단 일회적인.
왜 그러셨을까요? 왜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을 때, 처음 교회가 태동 되는 순간에, 이들이 외국어로서의 방언을 하게 하셨을까요?
근데 이 외국어로서의 방언이 성령 충만의 상징처럼, 방언이란 말과 연결이 돼 가지고, 그 방언이라는 말이 뜻하는바 성령의 기적적인 은사적인 능력이 나타나므로 연결이 되면서, 성령 충만이 굉장한 오해에 휩싸이게 됐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이 시점에서, 외국어 방언을 하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외국어는 근본적으로 언어입니다, 언어.
아! 기가 막힌 거예요.
요즘 뭐 보면 영어학원이 셀 수가 없어요.
TV에서 광고하는 것만 해도 1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유치원 때부터, 요즘은 유치원 때 배우잖아요? 유치원 때부터 대학생 때까지 영어를 붙잡고 씨름할 게 아니라, 유치원 된 아이를 데리고 기도원에 들어가 가지고 성령 충만을 기도하는 것이 영어를 빨리 습득하는 지름길인지도 모르겠어요, 이 외국어 방언이라는 걸 생각하면.
자, 이거는 지나가는 농담이고, 왜 하필 성령 충만할 때 외국어를 방언으로 주셨을까요?
언어라는 것은 언어 자체를 위해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방언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상태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이 방언을 외국어 방언을 주신 게 아닙니다.
언어는 언제나 전달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주시는 겁니다.
전달할 내용이 없으면 언어를 갖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지요.

어떤 사람과 세 시간이나 마주 앉아 있는데, 입이 구리도록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럼 언어를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말할 내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갈릴리 시골 어부 출신의 제자들에게, 알지도 못하고 외국에 가서 살아본 적도 없는 사람들에게 외국어를 할 수 있는 기적적인 언어 현상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 그러면, 언어로 나타나기 이전, 언어가 이 사람들 입에서 말해지기 전에, 더 먼저 나타난 사건이 있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어떤 내용이 이들 마음에 생겼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아니면 볼 수 없는 어떤 대상이 보여 졌다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콘텐츠가 있기 때문에 언어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서 외국어 방언을 말했다고, 성령 충만=외국어 방언과 연결시키는 이것에서 오해가 생겼다는 거예요.
외국어 방언은 부차적인 일입니다.
우선적으로는,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만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내용이, 이 다락방에 모여 있는 120명의 이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내용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과 연결되어야 될 사건은 뭐냐 하면, 도대체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이들이 이렇게 외국어의 기적적인 능력을 통해서 전달하려고 한 내용이 무엇이냐를 관심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모르는 내용, 성령 충만해야만 아는 내용이 뭐냐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면 이 내용과 연관지어 생각을 했어야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생활화 될 수 있었던 것인데…
사도들조차도 그 다음부터 외국어를 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일회적으로 일어난 외국어 사건, 이 외국어 방언과 연관지어서 성령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꼭 성령을 방언과 기적적인 능력과 연결지어버림으로써, 성령 충만의 사건이 믿는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일상화되지 못하게 돼버렸다는 얘기입니다.
큰 비극이지요.
교회가 죽어가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 충만을 통해서 일회적으로 허락된 외국어 능력을 통하여, 이들이 전달하려고

했던 그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내일 보겠습니다마는, 쭉 내려가다 보면 11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 일을, 성령 충만하게 되면서 이들이 깨닫고 알고 본 겁니다.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이 일이 안 보인 거예요.
하나님의 큰일이라는 게 구체적인 내용이 여기서 소개 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제일 큰일은, 이 우주보다 우주의 모든 것을 값으로 매겨도 턱도 안 될 독생자 예수님을 투자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큰일 이라는 게.
우주가 없어지는 게 큰일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게 큰일이겠습니까?
하나님에게는 독생자 예수님이 더 큰일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입니다, 그것과 연관 된 일인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연관된 일인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성령 충만 전에는 어땠습니까?
십자가의 예수님을 경험하고 손으로 만졌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못 자국과 창 자국을 손으로 만져 확인했습니다.
부활한 예수님 만나고, 승천한 예수님 봤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옆에서 뭐라 그럽니까?
이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아직도 이 땅 위에서의 일에 마음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을, 5감관으로 체험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5감관으로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큰일을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 부활의 의미가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기껏 이 땅 위에서 나라의 독립이 언제 이루어질 건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던 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서, 십자가라고 하는 현상,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의 의미가 깨달아진 겁니다.
하늘에서, 그것이 하늘에서 큰~ 일인 겁니다.

그래 이런 거예요.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구름 위로 올라 가셨습니다.
구름 위라고 그래서, in the sky 중에 sky의 상반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태양계도 시간과 공간 안에 있습니다, 은하계도 시간과 공간 안에 있습니다.
무한한 우주라 그러지만 시간과 공간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가신 곳은 천국이고, 시간과 공간의 세계와는 다른 차원이에요.
근데 구름이 가려졌습니다.
구름이라는 게 상징적으로 하늘나라, 이 땅과 구분되는 하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이 일어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늘 위가, 줌렌즈로 바싹 끌어당겨서 보여 지듯이 눈앞에 요렇게 보이게 된 거라는 겁니다.
접사촬영이에요, 접사촬영.
봄에 꽃이 피게 되면 사진작가들이 그 꽃의 아름다움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접근해서 촬영을 합니다, 근접 촬영을 합니다.
이렇게 접사촬영을 하면, 꽃은 꽃잎에 나와 있는 실핏줄같이 섬세한 부분까지 다 보입니다.
그런데 그 꽃 이외의 옆에 다른 모든 대상들은 뿌~옇게 나타납니다.

성령 충만이 일어나면, 바로 구름 위, 보좌가 있는 그 곳, 승천하신 주님이 우편에 계신 그 곳, 그 곳에서 일어나는 일, 그 곳에 있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그 곳의 느낌이 접사촬영 하듯이 내 마음에 전달이 되면서, 내가 놓여 져 있는 이 세상의 일들은 뿌~옇게 처리된다는 얘기입니다, 내 마음에.
그래서 바로 승천하기 직전까지,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독립합니까? 라고 이 세상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마음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면서 구름 위의 보이지 않고 뿌~옇게만 느껴졌던, 주님이 옆에 계셨음에도 깨달아지지 않고 알려지지 않았던, 구름 위의 사건과 구름 위의 계획과 구름 위에서 있어지는 하나님 마음의 그런 모든 일들이, 접사촬영 하듯이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 내용을 외국어로 전달한 거예요, 일회적으로.
일회적이라는 것에도 의미가 있는 겁나다, 그건 내일 하겠습니다마는.
자, 여기서 바로 세상 충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상 충만이 뭡니까? 거꾸로에요, 거꾸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옆에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마음은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독립할 것인가에 마음의 초점이 가 있습니다.
독립하게 되면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예수님에 의해서 독립이 될 때, 자기들은 장관자리를 차지할 것이고, 장관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부와 명예가 주어질 것이고, 권력이 주어질 것이고, 이 세상의 가치들이 나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비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충만은 뭡니까, 여러분?
주님이 계시는데도 구름 위, 천국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뿌~해요 뿌~해, 희미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일들이 비전, 비전이 뭐에요? 비데오, 본다는 얘기입니다.
라틴어의 본다는 말이거든요? 마음에 뚜렷~하게 접사촬영이 되는 거예요.
내가 10년 뒤에는 이러이러한 일을 이루리라.
우리 회사가 지금 상태는 이렇지만, 5년 뒤에는 이런 상태가 돼야 되겠다.
목사님 같으면, 지금은 교인이 100명이지만 내년에는 150명이 될 것이다, 비전을 갖자, 그리고 아름다운 교회건축을 꿈꾸자.
이게 바로 세상 충만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날 일에 대한, 명확한 접사촬영의 현상이 내 마음에 일어납니다.
그걸 우리는 자꾸 구체적으로 비전을 갖자, 구체적으로 꿈을 갖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세상 충만이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 되면 구름 위에 있는 일들이 보입니다.
접사촬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일어난 십자가 사건이, 도대체 구름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어떠한 계획과 어떠한 의도와 어떠한 소원 속에서 이루어져 있는가가 보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 생애, 이 땅에서의 생애는 누가 보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계시면 됩니다.
우리 마음이 접사촬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상 충만한 상태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 충만 하잖아요?
세상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한 내 소원이 명확하고, 세상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한 나의 비전과 꿈이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세상 일이 접사촬영 되면 하늘나라 구름 위의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과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마음과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뿌옇게 처리되고 맙니다.
그렇게 세상 충만한 상태에서 성령 충만을 갈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비전을 갖고 있고 이런 꿈을 갖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선교의 비전, 이것도 세상 충만이에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거짓말하면 안돼요.

하나님을 위하는 길은 하나님 때문에 온전히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온전히 만족해서, 이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일이 없는 게, 하나님을 위한 일입니다.
왜 거짓말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세계를 품는 선교의 비전을 갖는다고? 그거 세상 충만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과 주님의 이름과 선교라는 미명 아래에서 세상적 욕구를 이루려는 것이지요.
이 세상을 향해서는 이루고 싶은 게 없는 게 정직한 그리스도인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때 외국어 방언을 하게 됩니다.
외국어 방언에 초점을 맞추면 성령 충만의 역사를 오해하는 겁니다.
외국어 방언을 일회적으로 허락하신 이유는, 그 외국어 방언을 통하여 전달할 내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의 핵심적인 결과는 내용이에요, 이 외국어로 전달된 내용.
그 내용이 뭐였어요?
이 땅에서 일어난 십자가와 부활사건에 대해서, 아~무리 뚫어지게 봐도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러한 이 땅 위에서 십자가와 부활사건이 일어나게 된 이유와 의도와 근거와 하나님의 소원이 구름 위에 있는데,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 사건이 그 하나님의 심정과 계획이 나의 마음에 나의 계획처럼 전달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늘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스테반이 순교할 때 어떻게 됩니까?
성령 충만해서 외국어 방언했습니까?
성령 충만해서, 돌 던지는 사람들에게 돌을 얍! 얍! 해가지고 돌을 뿌리쳤습니까?
기적이 일어나서, 돌을 찍어서 상처가 났는데도, 갑자기 그 상처가 순식간에 아물었습니까, 기

적적으로? 아니에요.

성령 충만해서 나타난 일은 하늘이 열리고 구름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보좌에 앉아계신 아버지하나님과 우편에 계신 주님을 본 겁니다.

왜 성령 충만 사건을 자꾸 거지같이 군더더기를 갖다 덮어 씌워버려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세상 충만해 있으면서 자꾸 성령 충만을 갈구하지 마세요.

성령 충만을 모독하는 겁니까?

그래선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뭡니까?

구름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구름 위의, 도저히 알 수도, 볼 수도, 깨달을 수도 없는 그 구름 위의 모든 상황을 접사촬영해 주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럼으로써 하늘나라를 알게 되고, 하늘이 첫 번째 현실이 되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소원이 없어지는 게 성령 충만의 첫 번째 결과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구름 위의 사건을 접사촬영해 줍니다, 내 마음에,

그럼으로써 이 세상에서 세상 충만의 자리를 떠나 게 해주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정말 이 감격을 어떻게 추슬러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웬 말입니까?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기도함을 통하여 세상 충만의 자리에 대해서 죽어 빠져 나오게 하시고, 구름 위의 하늘이 접사촬영 되어 우리 마음이 천국을 현실로 삼아 거하게 되는, 성령 충만의 기적적인 은총이 오늘 하루 우리를 지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